

# 도서관과 담쌓고 사는 성인층

## 제구실 못하는 공공도서관... 도서관 이용훈련도 전혀 안돼 있어

### 절대부족한 공공도서관... 전국에 고작 175개

우리나라 성인들은 도서관을 얼마나 이용하는가. 약간은 한가한 생각 같지만 평일 오후의 국립도서관 열람실을 잠깐 들여다봤다. 준비한 좌석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은 학구파로 보이는 대학생들. 일반 성인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도서관 이용자의 80% 이상은 학생들입니다.古書를 보러 오는 노인층을 제외하면 일반 성인은 아주 적습니다.” 열람실 직원의 말이다.

실제 서울시내 16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성인은 하루 평균 5천명 안팎. 물론 ‘도서관 이용자=독서인구’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건 아니지만 성인의 도서관 이용율이 매우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성인이 왜 그렇게 적은걸까. 우선 도서관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전국의 공공도서관은 175

개. 이것은 72년에 70개던 것에 비하면 많이 증가한 것이지만, 일본의 공립도서관이 1,743개(87년)인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 우리보다 3배 정도 많은 인구를 가진 일본에 10배나 많은 도서관이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읽고 싶은 책은 모두 사서 읽을 수만은 없는 생활인에게, 도서관을 마치 은행이나 슈퍼마켓처럼 이용할 수 있는 일본의 현실이 부럽기만 하다.

한편 도서관수가 절대 부족하다는 현실 속에서 이용자의 태도는 어떤가. 국립도서관 참고자료실을 이용하던 한 무역회사원(36세)은 이렇게 말했다.

“도서관에는 가끔 회사일로 참고하기 위해서 아주 드물게 오죠. 일반도서를 도서관에서 빌려본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동료들 가운데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못봤어요. 도서관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박혀 있거든요. 우리부터 그런 식으로 이해했으니까요.”

이처럼 ‘도서관=공부방’이라는 생각이 박혀 있는 것은 이제까지의 교육방식에도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듯하다. 어쨌든 부족하나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도서관조차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 일반인의 안이한 생활태도에도 반

### 일반 성인층과 도서관의 거리는

아직도 멀기만 하다.

### 도서관의 진정한 발전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운영개선과 함께

이용자의 정보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높은 서비스기능이 갖춰져야 하며,

도서관에 대한 국민 일반의

적극적인 관심도 절실히 요망된다.

성의 여지는 충분하다.

### 대부분 위치 외지고 장서도 불충분해

하지만 도서관측에도 문제는 많다. 도서관의 목적이 ‘도서자료의 열람’에 있다면 당연히 이용자층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이용’에 불편하기 짝이 없는 변두리나 한적한 장소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성인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지난 5월 서초구로 이전한 곳은 노선버스도 몇 안 다니는 외진 장소다. 그나마 홍보가 제대로 안돼, 죽보를 보러 도서관을 처음 찾았다는 한 노인의 경우처럼 안내판조차 없어 애를 먹기 십상이다. 거대한 시설규모의 국립도서관에 넓은 공간은 필수적이겠지만, 일반인이 쉽게 이용하기엔 너무 외졌다는 느낌이다.

지역적 안배를 고려한 시내 공공도서관도 마찬가지. 워낙 수가 적기 때문에 버스를 몇 번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다. 영등포도서관 열람과장 임성재씨는 공공도서관이 “자료이용 위주로 되려면 교통의 요충지에 소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도서관이용의 확대를 위해 지역주민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어야 하는 공공도서관의 경우 너무 멀거나 한적한 곳은 피해야 한다는 것.

또 한가지 ‘도서관이용 시간’도 문제이다.

일반인들은 도서관을 점심시간, 퇴근후, 주말밖에 이용할 수 없는데, 현실적으로 도서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등절기는 5시)까지만 열람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가까운 일본의 경우 야간에도 문을 여는 도서관이 전체의 반수 가량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준다. 책을 갈망하는 독서인구를 위해, 퇴근후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배려는 불가능한 것일까?

도서관의 위치나 시간문제 외에 열람방식도 문제해결의 열쇠가 된다. 즉 개가식은 인접한 책을 자유로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에게도 바람직한 체제다. 이와 관련해 지금은 많은 도서관이 점차 개가식으로 탈바꿈하는 과도기에 있다고 한다. 국립도서관은 이전 후 각 실별로 개가열람을 실시했는데, 실제 이용빈도가 85%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개가식제로 운영이 바뀔에 따라 ‘자료의 부실함’이 시급한 문제로 드러난다. 현재 전국에는 5천권 미만 3~4천권의 장서를 보유한 도서관이 32개소나 되는데, 이것은 웬만한 장서가 한사람이 가진 장서량과 맞먹는 수치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 1년에 출판되는 신간은 3만종. 신간을 모두 비치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의 장서량(그나마 그 질도 문제이지만)으로는 자료와 정보를 원하는 이



일러스트레이션 - 이혜리

# 인기 높아가는 '밤의 도서관'

## 일본, 생활변화 맞춰 도서관 폐관시간 늦춰

도서관이라면 보통 저녁에는 문을 닫는 것이 통념.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는 閉館시간을 연장하는 도서관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 노동시간의 단축에 따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유효하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지, 각지에서 폐관시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소리도 높다. 퇴근후의 샐러리맨이나 직장여성들이 '밤의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례도 늘어나 매우 호평이라는 얘기가.

최근의 일본신문은 각지로 서서히 확대되고 있는 도서관 폐관시간 연장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기사를 다루어,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 공공도서관 38%가 야간에도 개관

일본도서관협회에 의하면 전국의 공공도서관수는 7년전의 1,368개에서 작년에는 1,743개(우리나라는 175개)로 늘었다. 그중에서 오후 6시까지 개관하는 도서관은 385개(7년전에는 244개), 7시까지는 170개(116개), 8시까지는 82개(58개), 8시 이후는 17개(13개)로 나타났다. 도서관수의 신장에 비해 야간 개관의 신장이 더 크다.

니이가타 현(新潟縣)의 한 시립도서관은 작년 11월에 신장오픈했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관하고 있다. 그 이전에는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열었는데, 시의 산업구조의 변화로 새로 改裝하면서 오전부터의 개관을 단행했다고 한다.

"이 도시는 옛날부터 섬유업이 번창해서 맞벌이나 가내수공업이 많으므로, 이용자가 일에서 해방되는 것은 밤이 되고서였다. 그 때문에 이용자의 실정에 맞는 시간대에 문을 열었다"고 담당자는 말한다. 그러나, 기계화가 진행되어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 데다가 고령화의 진행으로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개관시간을 앞당겼다고 한다.

그에 따라 도서관측의 부담도 그만큼 늘어났지만, 오후 6시까지는 직원이 근무하고 그 이후는 아르바이트로 꾸려가고 있다는 얘기가.

동경의 히비야(日比谷)도서관에서는 85년 4월부터, 그때까지 오후 7시까지였던 개관시간을 8시까지로 연장했다.

오후 6시반을 지나면 학생에 섞여 회사원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지방공무원인 한 남성(32세)은 "직장 내부의 승진시험 공부 때문에 자주 이용하는데, 늦게까지 열려 있어 매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도서관의 담당자는 "일반 이용자의 요망에 따른 결과이다. 회사원들에게는 호평인 것 같다. 직원은 교대근무제로 대응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 회사원들엔 호평이나 직원부담 늘어

개관하고 있는 시간을 연장함에 따라 일어나는 도서관측의 가장 큰 문제는 직원의 근무태세. 대개는 연장한 몫을 부담하는 인원을 새로이 변동하든가, 직원의 잔업이나 교대근무제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직원수의 재평가가 강조되고 있는 마당에 정규직원을 늘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일반적으로는 아르바이트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에 대한 도서대출건수가 7년전의 1억2천9백만권에서 작년에는 2억3천7백만권으로 대폭 늘어났다. 게다가 개관시간 연장으로 근무가 고달파겠다는 직원측의 불만도 없지 않다.

또한, 도서관의 업무는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아르바이트 태세로 충분한 대응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도 있다.

한 대학의 도서관학과 교수는 "업무량의 증가 등은 어느 정도 참아내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그러나 연장할 때는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개관시간으로 직원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노동조건이 확보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도서관활동에 오래 종사해온 어느 도서관장(57세)은 "업무량의 증가에는 기계화 등으로 대응해오고 있으나 이것도 한계에 다다랐다. 개관시간이 늘어나 자칫하면 도서관 직원이 구입도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없게 되는 등, 거꾸로 이용자에게 대한 서비스나 도서관활동이 저하하고 있는 곳도 있다. 야간 개관의 요구는 당연하고 시대의 흐름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요구되는 참다운 도서관이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요원하다는 느낌이다. 물론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겠으나, 국민의 독서생활과 직결된 도서관의 장서 정도는 제대로 갖춰야 하지 않을까.

### "도서관 이용훈련을 중고생때부터"

성인층의 도서관이용이 저조한데는 우리의 교육현실에도 큰 책임이 있다. 청주대 도서관학과 李振榮교수는 "도서관에 대한 인식은 학교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된 도서관을 갖추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수는 절대적으로 빈곤한 실정이다. 학생 시절부터 입시공부에만 시간을 빼앗겼지 학교도서관에서 자유롭게 자료를 찾고 이용하는 방법을 몸에 익히기 힘든 상황에서, 공공도서관의 활발한 이용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지적한다. 李교수는 지난 10월 13일과 14일 설악산 유스호텔에서 개최됐던 공공도서관세미나에서 「사회교육기능제고를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도서관의 적극적인 주민이용 계몽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대학도서관의 개방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도서관이용을 외면하는 이용자층에서도 할 말은 있다. 즉 생활에 쫓겨 책임을 시간도 없는데 도서관까지 일부터 찾아가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으며, 가뭇자 원하는 책을 제때제때 보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공공도서관의 실무자 대부분은 국내에서 출간되는 전체 신간도서 중 현재 도서관에서 구입하고 있는 양이 20~30%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정보입수를 공공도서관에 기대한다는 것이 무리라는 점을 입증한다.

"직장인들을 비롯해 성인들을 도서관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선 우선 그들의 정보욕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컴퓨터 시스템의 도입 등으로 도서관이 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예산사정으로는 엄두도 낼 수 없으며 노후시설대체, 자료 확보에 충당하기만도 힘들다"라고 종로도서관의 한 실무자는 안타까워했다. 또한 그는, 기존의 건물을 개조해서 공공도서관으로 이용하는 안일한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정식 도서관용도로 설계·건축됨으로써 이용자들이 안락하고 편리하게 자료를 찾아 볼 수 있어야 한다"면서 문화센터로서의 의미지 쇠신

을 기할 수 있는 행정적 차원의 개선을 강조했다.

### 도서관에 대한 인식 바로잡혀야

도서관 일선 실무자들이 느끼고 있는 가장 큰 고충은 역시 예산의 절대 부족이다. 한 실무자는 "지방자치체가 실시되면 도서관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이 대폭 늘게 될지도 모른다는 낙관적 견해도 있지만 오히려 현재 수준에 못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해, 도서관발전정책의 앞날을 바라보는 실무자들의 불안감을 전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것은, 부족하나마 도서관들이 현재 갖추고 있는 여러 기능을 적극적으로 이용해보려는 일반인의 관심과 자세다. 서울시내 공공도서관 대부분이 도서관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관외대출제도를 회원제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직장순회문고 등을 설치해서 마을·직장·산업체를 대상으로 순회 봉사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주부교실, 노인교실, 미취학아동을 위한 이야기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용율이 미미한 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일반인들이 도서관을 내집 서재처럼 이용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선 도서관운영방식의 개선과 이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 개개인이 책을 통해 자기개발에 힘쓰며 도서관이용에 자발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성숙된 사회분위기가 조성돼야 할 것이다.

—김지원·오애리 기자

## 출판저널

## 정기구독안내

10개월20호분·값1만원  
전화문의: 732-1431~3